

1

박쥐, 바이러스의 주범?



◆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글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박쥐, 바이러스 숙주의 주인공

지구상에 존재하는 박쥐는 약 오 천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서식해 왔다. 박쥐가 진화하면서 다양한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속에 침투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속에 정착하는 데 성공하면서 박쥐와 바이러스는 긴 공생 관계의 틀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 결과로 박쥐는 거대한 바이러스 저수지인 자연 숙주[○]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박쥐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집단생활을 한다. 소형 박쥐들은 대개 한 동굴에 수백만 마리가 같이 살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 종의 박쥐가 서식할 수도 있다. 반면 대형 박쥐들은 소규모 무리 집단을 형성하며 집단 간 주기적인 교류도 이루어진다. 신체 활동이 왕성한 번식기 동안 이러한 집단생활은 박쥐 사이의 긴밀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바이러스의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종이 서식하는 경우도 흔하며 그런 경우, 서로 다른 바이러스들의 뒤섞임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따라서 박쥐 집단 내에서 신·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사스 바이러스 출현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로

다른 종의 중국 관박쥐 코로나바이러스들이 박쥐 몸속에서 뒤섞이는 과정을 통해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잡종 바이러스를 탄생시켜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박쥐 대부분은 수명이 길다. 긴 수명으로 인해 집단 내 존재하는 바이



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심지어 평생 감염과 재감염을 반복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박쥐는 동면과 일상 숙면을 취해서 저체온을 유지하면서 대사 에너지를 보존한다. 이는 박쥐의 면역 기



능을 억제해서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의 지속적 감염 상태를 유지한다.

박쥐는 포유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비행 능력이 있어서 단기간에 병원체를 넓은 지역에 퍼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박쥐는 매일 먹이를 찾아다니고 계절에 따라 사는 곳을 옮긴다. 일부 박쥐종은 거의 2천 km를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과일 박쥐종의 경우 같은 장소에 여러 종이 모여 살면서 접촉을 자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바이러스는 매우 폭넓은 지역에 분포할 수 있다.

열대 지방에 사는 대형 과일 박쥐는 번식기 동안 필요한 에너지 보충을 위해 엄청난 양의 과일을 먹어 치운다. 그 과정에서 소화되지 않은 과일 조각을 토해 내는데 감염된 과일 박쥐가 토해 낸 과일 조각에는 많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 또 가뭄이나 벌목 등으로 과일이 줄어들면 다른 야생 동물과 먹이다툼을 벌일 수 있는데 이때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증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 에볼라다. 아프리카 원숭이들은 과일 박쥐와의 먹이 싸움 과정에서 자주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다. 운이 없게도 그 원숭이를 잡아먹은 침팬지, 또는 접촉한 사람은 에볼라에 걸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쥐는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 동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건이 된다. 이것이 신종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자주 출현하는 이유이다.

● 숙주: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

1 「박쥐, 바이러스 숙주의 주인공」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박쥐는 바이러스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나요?

- 2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의 어떤 습성으로 인해 생겨났나요?

- 3 열대 지방의 대형 과일 박쥐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증가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2 박쥐가 바이러스 숙주의 주인공이 된 원인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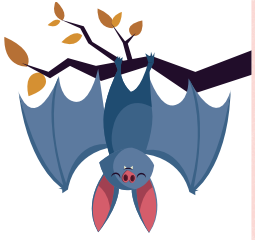
3 밑줄 친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초과 어림짐작 소홀히 하는 것 생명을 위협하는 것

- 박쥐가 보유한 바이러스 종류는 1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사람에게 치명적인 박쥐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자주 출현할까?

4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쥐, 바이러스 숙주의 주인공」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5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야생 동물은
음식이 아니다.
야생 동물을
먹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한국 동물 보호 연합-

저는 바이러스의
저장소일 뿐 야생 상태에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Four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했나요?



2

생각한 대로



◆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해 봅시다.



두 상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역시 내 기대만큼
쑥쑥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럴 줄 알았어,
또 시들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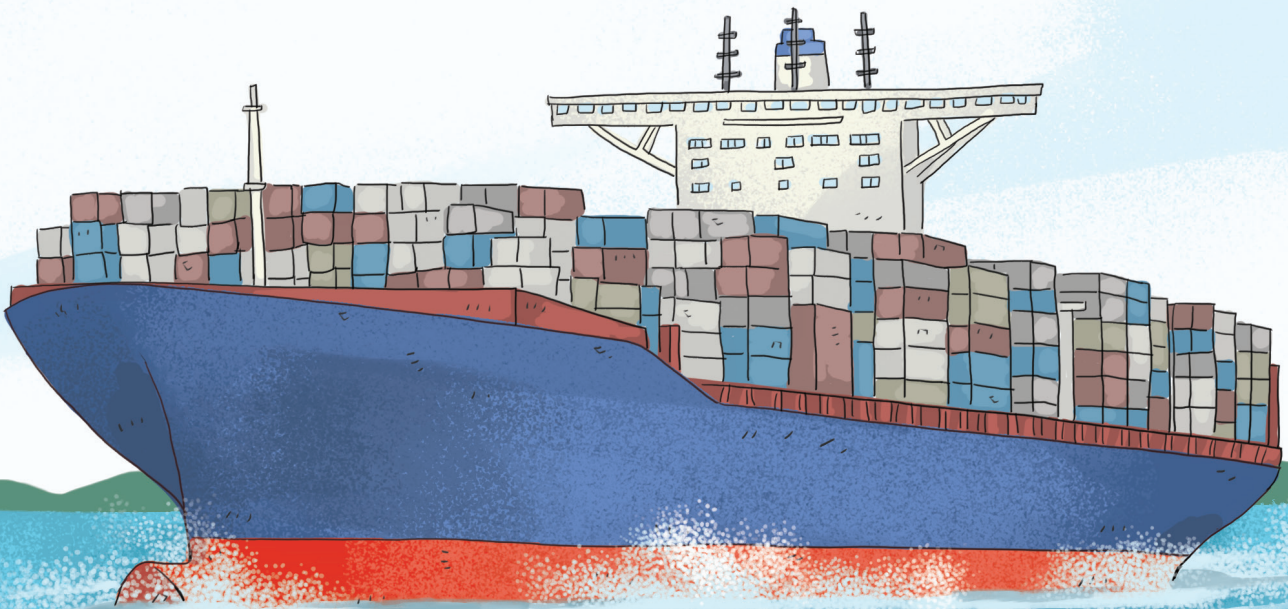
생각의 힘

인간의 생각은 무슨 일이든 이루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내리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닿을 내렸다. 포르투갈에서 나는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다.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부러졌는지를 확인하려고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가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다른 선원이 밖에서 냉동실 문을 닫아 버렸다. 안에 갇힌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포르투갈을 향해 다시 떠났다.

냉동실 안에 식량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선원은 자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힘을 내어 췌조각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 위에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시간별로 날짜별로 새겨 나갔다.





그는 죽음의 고통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뾰뾰 얼리고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을 적었고, 찬 공기에 언 부위가 견딜 수 없이 따끔거리는 상처로 변해 가는 과정을 묘사했으며, 자기의 온몸이 조금씩 굳어 지면서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변해 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배가 리스본에 닿을 내렸을 때,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연 선장은 죽어 있는 선원을 발견했다. 선장은 벽에 꼼꼼하게 새겨 놓은 고통의 일기를 읽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선장이 컨테이너 안의 온도를 재보자 온도는 섭씨 19도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그곳은 냉동이 필요한 화물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오는 항해 동안 냉동 장치가 내내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1 「생각의 힘」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선원이 냉동 컨테이너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했나요?

2 선원이 냉동 컨테이너의 벽에 새겨 넣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3 선원을 발견했을 때 선장이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생각의 힘」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음의 그림과 관련지어 설명해 봅시다.



3 「생각의 힘」을 나타내는 속담을 찾아 ○표를 해 봅시다.

• 재미나는 골에 범 난다.	<input type="checkbox"/>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떨어진다.	<input type="checkbox"/>

4 선원이 무사하게 구출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컨테이너의 벽에 어떤 글을 썼을까요? 선원이 되어 벽에 글을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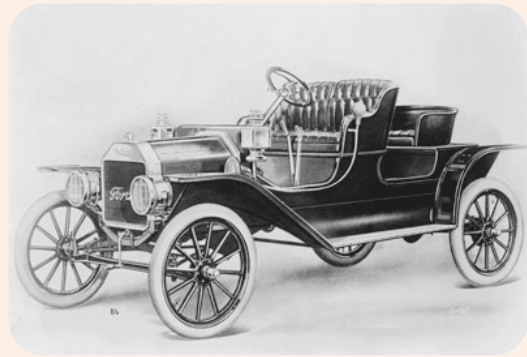
5 '자동차 왕' 포드의 말을 읽고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써 봅시다.



Ford, Henry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 다 옳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 포드





배움 다지기

● 글을 읽고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나요?



3

선생님은 AI



◆ 적절한 근거가 드러나게 의견을 써 봅시다.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AI란 무엇인가요?

AI란 사람의 학습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인공 지능을 통해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 처럼 지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AI

“수업 시간에 떠들, 벌점 1점.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음, 벌점 2점. 수업 시간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행동으로 수업 방해, 벌점 3점. 벌점 1점은 1번, 2번, 3번, 4번……. 벌점 2점은 1번, 2번, 3번, 4번……. 벌점 3점은 5번, 12번.”

벌점 폭탄을 맞은 아이들은 어안이 빙빙했다. 인공 지능 로봇이 담임이면 수업 시간에 개관을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한 노이든은 놀란 입을 다무는 것을 깜빡해서 침을 흘리기까지 했다.

“무슨 벌점을 그렇게 매겨?”

“벌점 준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담임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이 없으셔도 미래 초등학교의 교칙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약수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약수는 어떤 수를 나머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를 이르는 말입니다.”

별점 폭탄에 기가 죽은 아이들은 아주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약수에 대해서 유창하게 설명하고는 연습 문제를 풀라고 했다.

“와, 역시 인공 지능이라서 다르구나.”

“학원 선생님보다 더 설명 잘해.”

“문제가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동시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동시에 질문을 해도 저는 스무 명의 질문을 모두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 주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잠시 어리둥절해 있다가 더듬더듬 질문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입을 열고 말을 하자 딱히 질문할 것이 없는 아이들도 뭐든 말하고 싶었다. 짧은 소절이나 노래를 부르는 아이도 있었다.



담임은 허리를 약간 굽힌 채 아이들 사이를 느릿느릿 돌아다니며 문제 푸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약수란……. 5번 문제는 이렇게…….”

담임은 허리를 펴고 다리를 움직인 뒤 박한솔 옆에 섰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수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공약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공약수란…….”

박한솔은 우쭐해하며 아이들을 향해 브이 자를 그려 보였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담임은 이제 노이든을 향하고 있었다. 노이든은 어깨를 뒤로 잔뜩 젖히고 두 눈을 부릅뜨며 담임을 맞았다.

“노이든 군. 약수 물은 약효가 있는 샘물을 뜻하는 ‘약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키득댔다.

“오과란 양.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정이 부분적으로 반 옥타브 높았습니다. 박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수학 시간이므로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공단비양. 저는 팔등신이 아닙니다. 팔등신은 실제로 보면 인간답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친근함을 느끼도록 칠등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수학 시간이므로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담임은 아이들의 질문을 모두 해결해 주고,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별점도 듬뿍 준 뒤 차가운 등을 보이며 교탁으로 걸어갔다. 담임을 향해 몰래 주먹질을 하는 아이도 있었고 혀를 쏙 내미는 아이도 있었다. 그때 웬일로 노이든이 날카로운 대사를 내뱉었다.

“너희들, 참 인간답다.”

아이들은 그 소리에 담임이 인간이 아닌 로봇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화도 안 나고 약도 오르지 않으며 담임을 관두고 싶다는 생각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1 「담임 선생님은 AI」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조용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떻게 질문을 해도 된다고 했나요?

3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을 향해 몰래 주먹질을 하거나 혀를 내민 이유는 무엇일까요?

2 AI 담임 선생님의 장단점을 생각하며 ‘담임 선생님 사용 설명서’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봅시다.



담임 선생님 사용 설명서

1.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2. 욕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습니다.
3. _____
4. _____
5. _____

3 '똥똥지같다'라는 말의 쓰임을 알아보고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똥똥지같다

상황이나 이치에 맞지 않게 엉뚱한 행동이나 말을 하다.

• 아이들은 수업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

→ 아이들은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했다.

▶ '똥똥지'는 원래 '돼지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4 AI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읽고 나의 의견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써 봅시다.

AI 선생님은 있어야 한다.

AI 선생님은 있으면 안 된다.

5 기사를 읽고 AI가 하는 작곡과 연주를 예술로 볼 수 있는지 생각을 말해 봅시다.

성남 문화 재단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피아노 연주 대결이 펼쳐졌다.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프로세다와 엔지니어 마테오 수지가 2007년 처음 개발한 로봇 테오 트로니코가 무대에 올랐다. 테오는 53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1천 곡 이상의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로봇이다. 테오의 장기는 악보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아직 인간은 무미건조한 정확성보다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음악에 더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 대결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프로세다가 인간과 로봇의 피아노 대결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는 이유도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작곡하는 AI도 점점 발전 중이다. 지난해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경기필)는 인공 지능 작곡가 에밀리 하월이 만든 곡을 연주했다. 하월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이비드 코프 교수진이 개발한 AI 작곡 프로그램이다. 첫 앨범은 2009년 발매됐다. 하월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박자와 구조를 자료화한 뒤 이를 조합해 작곡한다. 수학적 분석을 통해 각 곡의 유사성을 찾아내고, 바로크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풍의 음악을 만든다.



배움 다지기

- AI 직업에 대한 내 의견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펼쳤나요?



4

악플, 표현의 자유일까



◆ 인물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펼쳐 봅시다.



제이비와 아무르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1 우리가 만든 사이트는 딱 두 가지 규칙만 세웠다.

규칙 1

사이트에 올리는 글은 자신이 직접 쓴 것이어야 한다.

규칙 2

사이트에 올리는 글은 사실이어야 하며, 우리 학교에 관해서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어야 한다.

우리는 사이트 이름을 <트루먼의 진실>이라고 명명했다.



2 우리 학교 최고의 왕재수는 누구일까요?

나는 새로 올라온 제목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근데 단순히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질문을 클릭하면 사진 한 장이 등장했다. 격하게 똥똥했던 한 여학생의 초등학교 시절 사진이었다.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애들이 각자 추측하기를 의도한 것이었다. 그게 이번 투표의 목적이었다.

그나저나 나는 단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 애가 누군지 대번에 알았으니까. 아무르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는 바로 릴리였다.

“이런! 저 사진을 애들 누구나 보게 놔둬도 되는 거야?”

아무르가 말했다.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저 사진 한 장일 뿐이야. 안 그래? 별문제 있겠어?”

“맞아. 별거 아냐.”

“게다가 사실이잖아.”

3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이비 말로는 릴리가 행방불명이라던데.”

“행방불명이라뇨?”

우리 부모님은 릴리 엄마에게 다가가서 도울 일이 있는지 물었다. 아무르와 나는 모여 있는 사람들 가장자리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한 여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자신을 형사라고 소개했다.

“너희 둘은 릴리하고 친구니?”

그녀는 작은 수첩을 펼치며 물었다. 아무르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는 사이이긴 해요.”

“그렇다고 함께 어울리진 않아요.”



아무르가 거들었다.

“알겠다. 그럼, 네 이름은 뭐니?”

우리가 이름을 말하자 형사는 쓰던 걸 멈추었다. 그녀는 수첩에서 두어 페이지를 뒤로 넘기더니, 몇 줄을 읽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너희가 바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녀석들이구나.”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말했다.

“너랑 아무르가 만들었다는 그 사이트 좀 보자.”

엄마는 <트루먼의 진실>을 만든 나와 아무르 때문에 릴리가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좀 전의 형사도 마찬가지로 말을 했다. 엄마는 우리가 언제 그 사이트를 만들었는지,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는지,



릴리에 대해 나쁜 글을 하나라도 올렸는지, 글을 올린 사람을 아는지, 누구나 원하는 것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잘한 일인지 등을 물었다.

“그렇게 나쁜 사이트는 아니에요.”

나는 컴퓨터 앞에 앉으면서 엄마에게 말했다. 아빠는 릴리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밖에 있었다. 엄마는 팔짱을 낀 채 사이트가 뜨기를 기다렸다.

“우리 사이트는 릴리를 쓰레기 취급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트루먼의 진실>은 인터넷 신문 같은 거예요. 학생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무엇이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도 말이야?”

“그거야…….”

1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트루먼의 진실> 사이트의 규칙은 무엇인가요?

2 제이비가 릴리에 대한 글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엄마와 형사는 릴리가 행방불명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2 <트루먼의 진실> 사이트 규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봅시다.

문제점	
새롭게 만든 규칙	

3 밑줄 친 사자성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표를 해 봅시다.

보기 제이비, 역지사지해서 생각하면 릴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떠벌리다.
- 처지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다.
-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고 하다.

4 릴리가 되어 이번 사건에 대한 생각을 <트루먼의 진실>에 써 봅시다.

5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생각을 읽고 내 주장과 의견을 써 봅시다.

인터넷 실명제란?

사용자의 실명을 밝히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합니다.



배움 다지기

● 인물의 입장이 되어 나의 생각을 펼쳤나요?



5

육류, 덜 먹어야 할까요



◆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시다.

비건



동물에게서 나오거나 동물 실험을 거친 음식도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가장 엄격한 단계

락토



채식을 하면서 유제품은 먹는 단계

락토 오보



채식을 하면서 달걀이나 우유, 꿀처럼 동물에게서 나오는 음식까지 먹는 단계

페스코



채식을 하면서 어패류는 먹는 단계

폴로



채식을 하면서 닭과 같은 조류의 고기는 먹는 단계

육류를 덜 먹어야 할까요

Yes

현대인의 식단에서 육류는 아주 맛있고 빠질 수 없는 구성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좀 다른 맛이 날 것입니다.

- ★ 육류는 어떤 다른 식품보다도 생산할 때 많은 열량이 소모됩니다. 사람마다 기초 열량이 모두 똑같다고 치면, 육류만 섭취하는 사람 한 명에게 들어가는 열량으로 채소만 섭취하는 사람 여러 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 ★ 공장형 농업의 육류 생산 방식은 엄청난 양의 메탄(온실가스의 하나)과 질산염, 그리고 암모니아 유출 수(수질 오염 물질로 물속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 유발) 등을 배출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인류가 만들어 내는 메탄 생산량의 35~40%가 가축의 사육이나 그 폐기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 ★ 쇠고기와 닭고기의 공장형 농업은 병원성 대장균 등 항생제 내성을 지닌 박테리아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But

우리가 현재 육류를 생산하는 방식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육류 자체보다는 그것을 생산하는 방식(공장형 농장과 밀집 사육 축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 ★ 사실상 적절한 방목 방식을 채택한다면 소는 생태계 재생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넓은 방목지나 대초원 지대 같은 곳이라면 말입니다. 방목은 육류 생산에 화석 연료를 아주 적게 들이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건강을 더 촉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 ★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들에서는 포식자가 없는 생태계에 살고 있는 사슴이나 토끼, 거위의 개체군을 건강하고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사냥이 도움이 되거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돼지나 염소 같은 동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잡초를 제거하면서 질 좋은 식품을 생산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1 「육류를 덜 먹어야 할까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공장형 농업의 육류 생산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2 소를 넓은 지역에 방목하는 것은 어떤 점에 도움이 되나요?

2 글에서 제기하는 육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hr/> <hr/>

3 대화 내용과 비슷한 의미의 속담을 찾아 ○표를 해 봅시다.

동동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저는 오늘부터 채소만 먹을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채소만 먹는 것은 채소를 안 먹는 것보다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단다.

- 남의 떡이 커 보인다.
-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육류 위주 식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써 봅시다.

농장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5 글을 읽고 나의 탄소 발자국을 생각해 봅시다.

탄소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대기 속의 탄소계 기체들, 설탕이나 섬유소, 지방, 그리고 단백질 같은 동식물의 몸속에 들어 있는 탄소계 화학 물질 사이를 순환합니다. 지구의 대기 속에 있는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등은 지구 표면에서 나오는 적외선 방사에 대해 반사층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열을 가두고 지구를 덥게 만듭니다. 이러한 탄소 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며 농도가 약해지면 냉각 현상이 생깁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한 개인의 활동으로 일 년간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량을 말합니다. 전기 발전, 운전, 운송이 필요한 상품의 구매, 합성 비료를 사용한 채소 재배, 그리고 가정 난방 등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실 기체의 총량에는 일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연료와 전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탄소 발자국은 어디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는지를 추적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긴 개념으로 kg 단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수와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탄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을 알아볼까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

- 여름에는 26℃ 이상, 겨울에는 20℃ 이하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한다.
-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둔다.
- 걷기 → 자전거 타기 →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한다.
- 장바구니를 애용한다.
- 친환경 상품을 구매한다.
- 샤워 시간을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한다.
- 음식은 적다고 느낄 만큼만 조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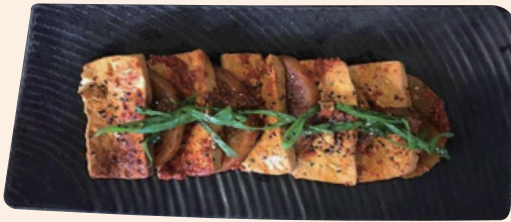


6 그린피스가 소개하는 채식 요리 방법을 알아봅시다.

내가 먹는 한 끼 식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면

채식 요리에 샐러드만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 그린피스가 채식 요리사와 블로거들이 추천하는 채식 요리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입과 눈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몸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요리법,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양념 두부 무 지짐



재료 및 분량(4인분)

두부 2모, 무 1/3개
양념: 진간장 140g, 다진 마늘 10g,
파 1/2개, 설탕 40g,
고춧가루 40g, 물

만드는 법

1. 두부 2모를 먹기 좋게 자른 후 채반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거나, 키친타월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2.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 양면을 노릇하게 구워 줍니다.
3. 무는 반달 모양으로 1cm 두께로 썰고, 파는 다져 주세요.
4. 양념장은 분량의 재료를 섞어 만들어 둡니다.
5. 냄비에 무를 깔고, 지진 두부를 얹은 다음 맨 위에 양념장을 골고루 올려 주세요.
6. 두부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 줍니다.
7. 무에 간이 벨 때까지 물을 넣어 가며 졸여 주세요.



배움 다지기

- 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나요?



6

한옥, 과학과 만나다



◆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한옥 지붕과 다른 나라 전통 건축물의 지붕을 비교해 봅시다.



중국 '예원'



일본 '동대사'



우리나라 '경회루'

그 자체가 과학이다,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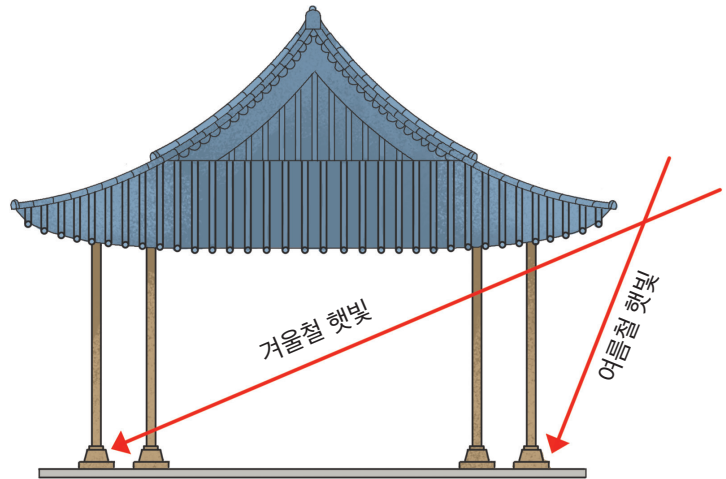
1 도심 속 먼발치 시야에서도 한옥의 독특한 지붕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현대적 건축물은 대부분 지붕이 없는 직육면체 형태지만 한옥은 사다리꼴 모양의 지붕으로 덮여 있죠. 지붕의 형태도 다양한데, 그 안에는 과학적 아이디어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한옥 지붕 중 사각형과 사다리꼴이 붙어있는 모양을 ‘팔작지붕’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퉁이 기둥이 비에 젖고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뒤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 나온 구조입니다.

2 한옥 지붕에는 ‘사이클로이드(cycloid) 곡선’ 원리도 적용됩니다. 빗물이 지붕에 고였다가 내부로 스며들면 나무로 된 부분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빗물이 최대한 빨리 흘러내리게 만든 구조입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원에 한 점을 찍고 직선 위에 굴렸을 때 나오는 곡선을 뜻하는데, 한 바퀴 굴리면 그릇을 얹어 놓은 것 같은 곡선이 그려지죠. 높이가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져 강하 속도가 빨라집니다. 경사가 직선일 때보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일 때 강하 속도가 더 빨라 최단 강하 곡선이 되죠. 빗물이 최대한 빨리 떨어지도록 한 구조입니다.



3 한옥 처마의 돌출 각도는 햇빛과 밀접합니다. 대청마루와 기단을 넘어 마당까지 닿는 처마가 햇빛 조절 장치 역할을 하죠. 처마를 넓게 빼서 여름에는 수직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고, 겨울에는 햇빛을 통과시켜 온기가 마루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겨울철 햇빛은 아침 10시쯤 대청의 마당 쪽 끄트머리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후 4시쯤이면 대청 안쪽 끝에 정확히 닿는다고 해요.



4 한옥에 나 있는 창(窓)의 위치는 햇빛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지구는 기울어져 있기에 북반구에서는 여름에는 해가 높이 떠 햇빛이 수직에 가깝게 내리고 겨울에는 낮은 각도로 완만하게 비춥니다. 이 두 각도 사이에 창을 내어 여름에는 햇빛을 막고 겨울에는 햇빛을 끌어들여 이용하는 것이죠. 창(窓)의 위치도 모두 일직선으로 놓아서 바람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또한 한옥은 땀돌에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문지방을 넘어 방에 들어가는 식으로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꺾임과 변화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는 여러 곳에서 반사율을 다양하게 햇빛을 직접 반사해 방 안으로 넣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1 「그 자체가 과학이다, 한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한옥 지붕이 사다리꼴 모양의 팔작지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한옥에서 처마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 3 한옥의 구조가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나요?

2 각 문단의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고 중요한 낱말을 써 봅시다.

문단	중요한 낱말
1	팔작지붕, 뒤틀림, 보호
2	
3	
4	

3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강하 돌출 완만

- 그 사람은 광대뼈가 유난히 되어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 어떤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절벽 아래쪽으로 했다.
- 지난 일요일에 아버지와 갔던 산은 다행히 해서 등산하기 편했다.

4 2에서 정리한 중요한 낱말과 중심 문장을 참고해 「그 자체가 과학이다, 한옥」을 요약해 봅시다.

5 글을 읽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선조들이 선택한 지붕 곡면의 정체, 사이클로이드

사이클로이드는 바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로, 원 위에 점을 하나 찍고 원을 직선 위에 굴렸을 때 그 점이 그리는 자취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굳이 사이클로이드를 기왓골 곡선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알아 보려면 직선, 사이클로이드, 원호(원의 일부)의 경사로로 만든 미끄럼틀 위에서 동시에 공을 굴려 보는 실험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어느 경사로에 놓인 공이 더 빨리 내려갈까? 당연히 직선 경사로에 놓인 공이 경사로의 길이가 짧아서 가장 빨리 내려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다. 신기하게도 직선도 원호도 아닌 사이클로이드 경사로를 따라 내려간 공이 가장 빨리 내려간다. 이는 중력과 관련이 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위의 각 지점에서의 속도는 모두 다르며 이에 따라 사이클로이드는 직선보다 더 먼 거리를 돌아가면서도 가장 빨리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더 먼 거리를 돌아가는 원호의 경우에는 사이클로이드보다는 느리지만 직선보다는 빨리 도착한다. 한마디로 사이클로이드는 ‘직선보다 빠른 곡선’인 셈이다.

선조들은 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이드를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 한옥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목조 건물이기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최대한 빨리 떨어지도록 해야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발휘된 것이다.



배움 다지기

- 중요한 낱말과 중심 문장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요약했나요?



7

진짜 시와 가짜 시



◆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해 봅시다.



두 편의 시 중 마음에 드는 시를 고르고 이유를 말해 봅시다.

어머니 마음

어머니 마음은
하늘인가 봐.

높고 높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머니 마음은
바다인가 봐.

깊고 깊은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까

어머니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나 봐.

넓고 넓은 품에 안기면
이불처럼 포근하니까.

어머니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나 봐.

언제나 환한 웃음을
띠고 계시니까.

엄마 발

엄마가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이 안 벗겨졌다.

우리가
억지로 벗겨 보니

엄마 발이 몹시
뽕뽕 부었다.

엄마 발은
뽕뽕 부었지만

발이 예쁘고
빠죽 구두 신은 발보다

평퍼짐하지만
엄마 발이 더 좋다.



진짜 시와 가짜 시



진짜 시와 가짜 시는 어떻게 구분할까? 겉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은데 읽고 나면 아무 느낌이 남지 않는 시는 가짜 시다. 특별히 잘 쓴 것 같지 않아도 읽고 나면 느낌이 남는 시가 진짜 시다. 시뿐 아니다. 그림도 마찬가지다.

조선 시대에 명화로 알려진 유명한 그림이 있었다. 소나무 아래에 선비 한 사람이 뒷짐을 지고 위를 올려다보는 그림이었다. 소나무도 잘 그렸지만 뒷짐진 선비의 표정이 너무너무 생생했다. 모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몽유도원도」를 그린 유명한 화가 안견이 이 그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을 구경하러 갔다. 그림 주인은 훌륭한 화가가 자기 그림을 보겠다고 직접 찾아온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림을 펼쳤다. 이제 과연 어떤 칭찬이 쏟아질까? 주인은 설레는 표정으로 침을 꿀꺽 삼켰다. 한참 만에 안견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잘 그리긴 했는데, 조금 아깝구려.”

주인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나고 물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람이 높은 곳을 올려다보자면 목 뒤에 반드시 주름이 잡히게 마련이오. 그런데 고개를 젓혀 바라보는 선비의 뒷덜미에 주름이 하나도 없질 않소?”

안견은 다시 보기도 싫다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 버렸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그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린 그림이 되고 말았다.

소나무를 그리는 솜씨도 뛰어났고, 사람의 표정도 생생했다. 다만 화가는 소나무를 올려다보는 선비의 목 뒤의 작은 주름을 놓치고 말았다. 그 결과 소나무의 푸르른 기상을 우러르는 선비의 마음까지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화가는 그림 속에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그림도 죽은 그림이 되고 만다. 그런 그림은 가짜다.

시인도 마찬가지다. 시인은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노래한다. 그런데 그 속에 시인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표현이 아름다워도 읽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

살아 있는 시는 어떤 시일까? 한시를 한 수 살펴보자.

고려 때 시인 고조기가 지은 「산장의 밤비」라는 작품이다.

어젯밤 송당에 비가 왔는지
베갯머리 석편에서는 시냇물 소리.
새벽녘 트락의 나무를 보니
자던 새는 둥지를 아직 떠나지 않았네.



내용만 보면 단순하기 짝이 없다. 간밤 잠결에 시냇물 소리를 들은 것도 같다. 간밤에 비라도 온 걸까? 새벽에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마당 나무 위 새둥지에 새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이 시의 내용은 별것이 아니다.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시인의 마음이다. 시인은 어째서 나무 위에서 자던 새가 여태까지 둥지를 떠나지 않은 것을 말할까? 산속 집의 아침은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노래하는 산새들의 합창으로 시작된다. 보통 때 같으면 새소리에 늦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날이 흰히 밝았는데도 밖이 거짓말처럼 조용하다.

시인은 처음에 “어? 오늘은 웬일로 요놈들이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생각했다. 그는 궁금해서 방문을 활짝 연다. 처음에는 새들이 울지 않기에 아직도 날이 새지 않은 줄 알았다. 문을 열고 보니, 새들은 포근한 제 보금자리를 나올 생각이 없다는 듯이 둥지 속에다 제 몸을 파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시인은 모든 사실을 다 알아차렸다. 그래 어젯밤 꿈결에 시냇물 소

리가 들려왔는지. 간밤에 산속에 비가 많이 왔었구나. 그 비에 시냇물이 불어났던 게로군. 숲이 온통 젖어 먹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 녀석들이 둥지에 틀어박혀 있는 게로구나. 시인은 배를 깔고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둥지 속의 새를 쳐다본다. 둥지 속의 새도 말뚱말뚱 주인을 바라본다. 오늘 아침은 이렇게 말없이 놀자고 한다.

가만히 이 시 속의 정경을 그림으로 옮겨 보면 참 재미가 있다.



정선의 「인곡유거도」

1 「진짜 시와 가짜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화가 안견이 소나무와 선비 그림을 보고 실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림과 시를 쓰려면 작품에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 했나요?

- 3 글쓴이가 「산장의 밤비」를 살아 있는 시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산장의 밤비」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려 봅시다.



3 문장을 읽고 밑줄 친 말의 뜻을 파악해 써 봅시다.

으쓱했던 주인은 안건의 말에 코가 납작해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4 「진짜 시와 가짜 시」의 주장을 파악하여 「어머니 마음」과 「엄마 발」을 비교해 써 봅시다.

5 옛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꿈꿈 얼어붙은 차가운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 매화를 아주 사랑했다고 합니다. 매화와 관련된 한시 세 편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 봅시다.

도산 달밤에 핀 매화

홀로 산창[●]에 기대서니 밤기운이 차가운데
매화 가지 끝에는 둥그렇게 달이 떴다.
살랑살랑 미풍을 기다릴 것도 없이
온 집안에 맑은 향기가 절로 가득하다.

● 산창: 산에 있는 집에 나 있는 창문





매화 가지 끝의 밝은 달

매화는 본래부터 환히 밝은데
달빛이 비치니 물결 같구나.
서리 눈에 흰 살결이 더욱 어여빠
맑고 찬 기운이 뼈에 스민다.
매화꽃 마주 보며 마음 씻으니
오늘 밤엔 한 점의 찌꺼기 없네.

매화 매
매화
얼음 뼈
옥 같은 뺨.
선달 다 가고
봄 오려 하는데
북쪽 아직 출진만
남쪽 가지 꽃 피웠네.
안개 아침에 빛 가리고
달 저녁엔 그림자 배회하니
찬 꽃술 비스듬히 대술 넘나고
향기는 날아서 금 술잔에 드누나.
흰 떨기 추위 떠는 모습 안쓰럽더니
바람에 날려 이끼에 지니 애석하도다.
굳은 절개를 맑은 선비에 견줄 만함을 아니
그 우뚝함 말한다면 어찌 보통 사람에 비하리.
홀로 있음 사랑하여 시인이 보러 감은 용납하지만
시끄러움 싫어해 나비가 찾아옴은 허락지 않는도다.
문노라, 조정에 올라 높은 정승의 지위에 뽑히는 것이
어찌 옛날 임포 놀던 서호의 위, 고산의 구석만 하겠는가.



배움 다지기

-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를 비교하여 생각을 썼나요?



8

클래식과 친해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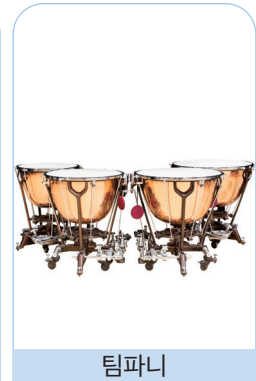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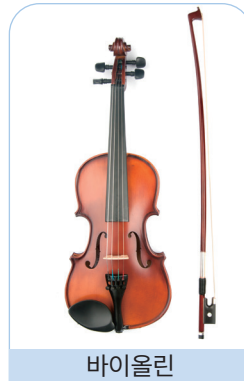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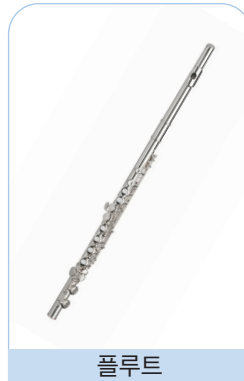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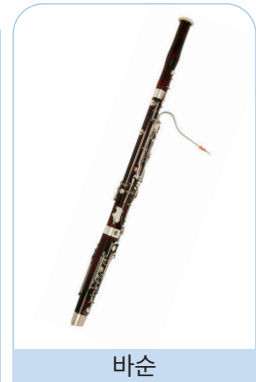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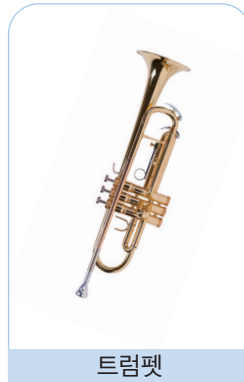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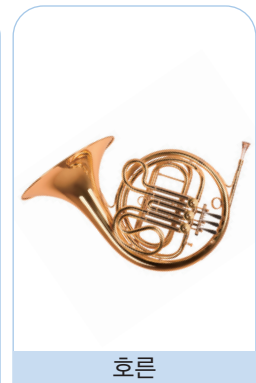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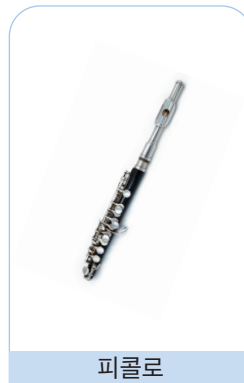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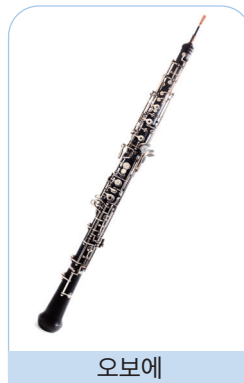


◆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알고 글을 써 봅시다.



오케스트라 악기 중 목관악기는 어떤 것인지 찾아봅시다.

목관악기는 자연에서 나오는 도구로 자연의 울림을 재연하는 악기입니다. 목관악기는 리드를 이용하거나 직접 취구에 입을 대고 진동으로 소리를 냅니다. 나무나 금속을 재료로 만듭니다.



마음을 홀리는 오보에

오보에를 잘 모르더라도 악기의 음색을 들어보면 떠오르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에 나와 아름다운 선율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넬라 판타지아」는 영화 음악을 재구성한 곡으로 원곡의 이름은 「가브리엘의 오보에」입니다. 영화 「미션」은 선교사가 오보에를 가지고 오지에 있는 원시인 마을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오보에 소리로 그들의 마



음을 얻는다는 설정입니다.

플루트나 클라리넷과 같은 다른 목관악기로도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었을 텐데 굳이 오보에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그 이유는 오보에의 역사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중세 시대 교회에서는 실제로 오보에 연주가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 교회에서는 모든 악기가 배척을 받았지만 오보에는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홀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오보에는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악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오묘한 음색입니다. 오보에의 독특한 음색은 수많은 소리가 섞여 있는 가운데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할 정도로 영향력이 큼니다. 따라서 다양한 음이 어우러져 있을 때 혼자서 독특한 소리를 낸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 소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모두가 “네!”를 외칠 때 혼자 “아니요!”라고 주장하며 튀어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보에는 독특한 소리 때문에 어디를 가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케스트라에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보에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클래식 연주회를 보러 가면 항상 첫 번째 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오보에의 ‘라’ 음입니다. ‘라’ 음은 가장 기본적인 음으로 모든 악기가 이 음정에 맞춰 조율합니다. 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악기가 오보에입니다. 오보에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특한 음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튀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오보에가 오케스트라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의 음정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펫 못지않은 소리 전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토록 매력적인 악기인 오보에는 어떻게 발견되고 유래된 것일까요?

오보에는 기본적으로 두 입술을 다 사용하는 겹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민하고 섬세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진동으로 나무를 울려 소리를 내는데 음색이 굉장히 밝고 소리 전달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높은’이란 뜻을 가진 프랑스어 ‘오’와 ‘나무’라는 뜻을 가진 ‘보이스’가 합쳐진 ‘오보에’입니다. 말 그대로 높은 소리를 내는 나무입니다. 실제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오보아’인데 약 1770년부터 지금의 오보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영화 「미션」의 주제곡 「가브리엘 오보에」를 들어 보면 오보에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클래식을 추천하자면 오보에 소리가 돋보이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2악장」입니다. 처음에 오보에가 멜로디를 이끌어가면서 들려주는 특유의 음색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마음을 홀리는 오보에」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과거 중세 시대 교회에서 오보에 연주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항상 첫 번째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 3 「가브리엘의 오보에」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4번 제2악장」을 듣고 오보에 음색에 대한 생각을 써 봅시다.

2 오보에의 특징을 분석해 설명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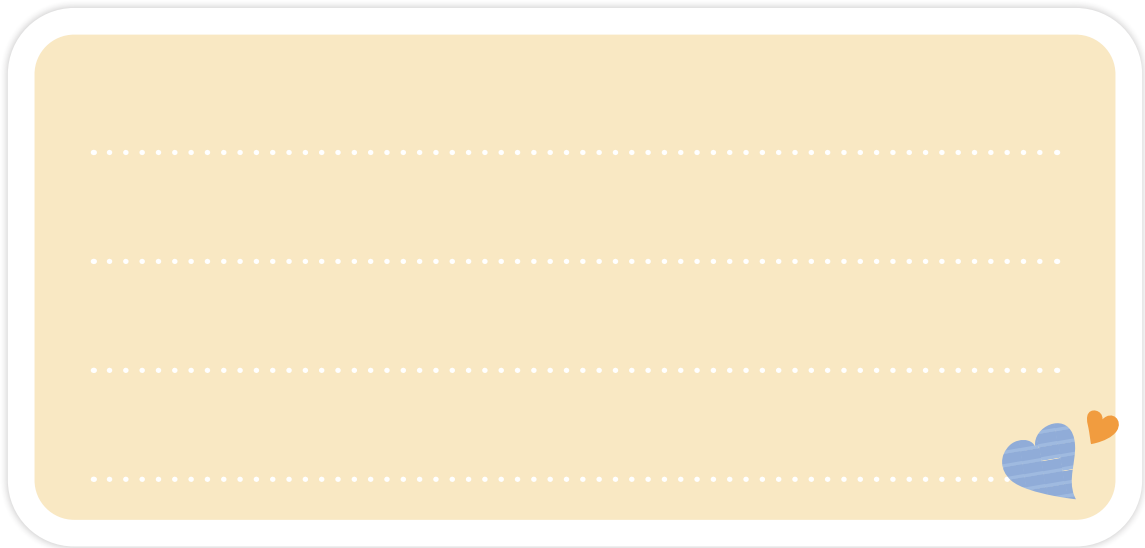
역사	
오케스트라와 음색	
이름의 유래	

3 괄호 안의 낱말 중 맞춤법에 맞는 말을 골라 ○표를 해 봅시다.

- 오보에를 연주하던 사람은 갑자기 나를 보고 (알은체 / 아는 척)했다.
- 그 사람은 악기에 대해 무척 잘 안다는 듯 (알은체 / 아는 척)했다.

▶ ‘알은체’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는다는 뜻이고, ‘아는 척’은 지식을 과시하거나 어떤 사실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4 목관악기 중 하나를 골라 특징이 드러나게 설명해 봅시다.



5 다음 글을 읽고 클래식과 친해져 봅시다.

음악 용어만 알아도 이탈리아를 여행할 수 있어요

음악 용어는 대부분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몇몇 음악 용어는 여행할 때 쓰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빨리빨리’다. ‘프레스토(Presto)’는 ‘아주 빠르게’라는 음악 용어다. 상황이 급할 때 “프레스토! 프레스토!”라고 외치면 된다. 현지 억양으로는 “쁘레스또!”라는 발음에 가깝다.

만일 어딘가 가야 하는 상황에서 택시를 탔다면 이렇게 외쳐 보자.

“쁘레스또!”

여행의 또 다른 묘미는 음식이다. 이탈리아에 가면 당연히 피자나 파스타를 먹어 보게 될 것이다. 맛있게 식사한 뒤에 달콤한 후식이 필요해진다. 여기서 이 디저트를 ‘돌체(Dolce)’라고 한다. 돌체는 ‘달콤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음악 용어에선 ‘감미롭게’라는 뜻으로 쓰인다. 달콤한



노래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실제로 메뉴판에 보면 ‘Dolce’라고 영문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부터가 디저트 목록이다.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에서 충분히 식사를 마쳤다면 점원에게 우아하게 외치면 된다.

“돌체!”

‘살살’, ‘부드럽게’, ‘소곤소곤’, ‘약하게’ 등 강도가 약한 느낌을 이야기할 때는 ‘피아노(Piano)’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 현지 억양으로는 “삐아노”에 가깝다.

반대로 강도가 강한 뉘앙스가 필요할 때는 ‘포르테(Forte)’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 이러한 썸머 기호의 명칭 역시 활용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클래식에서 쓰이는 음악 용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클래식을 풍요롭게 느끼고 싶다면 음악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듯 여행도 마찬가지다.

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느끼고 즐기고 싶다면 언어에 관한 공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클래식 공연장에서 박수는 언제 칠까요

“브라보!” 많은 박수와 함께 클래식 공연장에서 흔히 듣는 환호다.

남자 성악가에게는 ‘브라보(Bravo)’, 여자 성악가에게는 ‘브라바(Brava)’, 남자와 여자 성악가 모두에게는 ‘브라비(Bravi)’라고 환호한다. 이처럼 오페라에서는 성악가의 노래가 끝났을 때 항상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에선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삼가고 음악이 모두 끝난 뒤에 손뼉을 쳐야 한다. 또 실제로 미리 그렇게 공지를 한다. 문제는 어느 부분이 악장의 끝이고 또 어느 부분이 음악의 끝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흔히 두 가지 유형의 박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은어로 ‘눈치 박수’와 ‘안다 박수’ 이렇게 두 가지다.

눈치 박수는 옆에서 하면 따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두 명의 박수가 시작되면서 모두 같이 따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 처음 시작은 누구일까? 바로 안다 박수를 하는 사람이다. 곡을 잘 알기 때문에 끝나는 타이밍에 자신 있게 손뼉을 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칫 모두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 음악이 모두 다 끝나더라도 몇 초간의 잔향이 남기도 하는데 그 순간마저 음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쉽고 정확한 박수의 타이밍은 참 간단하다. 바로 연주가 끝나고 연주자나 지휘자가 인사를 할 때 마음껏 박수를 해 주는 것이다. 출연자가 인사하는 순간에만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클래식을 감상하는 데 할애하면 된다.



배움 다지기

-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알고 글을 썼나요?



9

역사상 최고의 그림



◆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써 봅시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감상해 봅시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역사상 최고의 그림은 무엇인가

1985년, 화가와 비평가를 대상으로 설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렘브란트의 「야경」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꼽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림이 1위에 오르리라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법 상당한 격차를 두고 1위에 오른 그림은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의외의 결과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만 해도 벨라스케스는 대중적으로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은 「시녀들」을 보려는 인파로 일대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대단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한눈에 보기에 이 그림은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주인공은 가운데에 있는 어린 소녀인데 바로 스페인 궁정에서 모든 이들로 부터 사랑을 받는 마르가리타 공주입니다. 그 옆으로 두 명의 시녀와 두 명의 난쟁이 그리고 개가 있고 뒤에는 몇 명의 수행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왼편에는 큰 캔버스 뒤로 붓과 팔레트를 든 남자가 보입니다. 바로 화가인 벨라스케스입니다. 화가를 보는 순간 우리의 선입견은 깨집니다.

‘아하, 화가가 거대한 거울을 보면서 공주와 여러 궁정인을 그리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려는 순간 멀리 배경에 있는 작은 거울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울 속에 두 인물이 보이는데 흐릿하긴 해도 알아볼 만합니다. 이들은 바

로 왕과 왕비입니다. 거울 속에 국왕 부부가 등장하는 순간 다시금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었습니다. 즉 관람객이 있는 자리에는 왕과 왕비가 있는 것이고, 화가는 공주가 아니라 이들을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림 속 상황이 제대로 풀려나갑니다. 공주는 이제 막 불러 온 것입니다. 초상화 모델이 되어 지루한 시간을 보내던 국왕 부부는 사랑하는 공주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지 공주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왼쪽의 시녀는 마실 것으로 공주의 마음을 달래려고 열심히입니다. 오른쪽 시녀는 막 도착했는지 국왕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국왕이 있는 곳이면 늘 함께 있어야 하는 난쟁이들과 개는 공주와는 상관 없이 여기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림에 자신의 모습을 넣음으로써 한 번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거울 속에 국왕 부부를 넣음으로써 두 번째 반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과 관람자의 관계를 가볍게 비틀어버립니다.

벨라스케스의 뛰어난 재능 중 하나는 빠르게 그려내면서도 그 결과가 보다 생생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앞의 그림 「시녀들」에 등장하는 시녀입니다. 그림 속 작은 부분을 확대하고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의상에서 특히 소매 부분의 반짝이는 느낌은 몇 개에 불과한 하얀 선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머리 장식은 몇 번의 붓질로 물감을 뽕개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거리를 두고 이 시녀를 봅시다. 그야말로 사진을 보는 듯 생생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벨라스케스의 마법입니다.



1 「역사상 최고의 그림은 무엇인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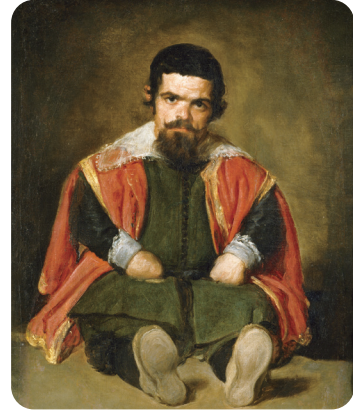
- 1 역사상 최고의 그림으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선정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벨라스케스가 가진 탁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 3 「시녀들」이 역사상 최고의 그림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그림 「시녀들」을 보고 새롭게 보이는 것을 써 봅시다.

- 3 벨라스케스의 「세바스티안 데 모라의 초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써 봅시다.



- 4 ‘그림의 힘’을 느끼며 다음 그림들을 감상해 봅시다.

수천 개의 말로도 내 진짜 감정 하나를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나에게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림 앞에 서면 나의 내면이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은 스트레스를 풀어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림은 소통과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그림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음 그림들을 감상하며 그림의 힘을 믿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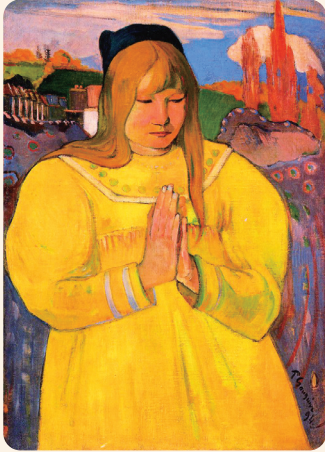
짜증을 풀려면 붉은 방으로 가라



마티스, 「붉은 색의 조화」

식탁에는 쾌활한 긍정을 주는 노란색 과일들이, 창밖을 보면 마음이 쉴 수 있는 초록의 공간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지배적이지만, 보는 사람이 감정에 삼켜지지 않고 화가 풀리게 합니다. 그야말로 이 그림의 제목이 가리키는 ‘붉은 색의 조화’의 힘인 것이죠.

긴장을 풀어주는 노랑의 힘



고갱, 「기도하는 브르타뉴의 여인」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지요. 그런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언제 노랑을 보나요? 여문 곡식과 빛나는 태양의 고유색이 바로 노랑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화가가 희망의 상징물에 노랑색을 넣어왔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쉽게 긴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그림을 보고 편안히 마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5 클레의 「세네치오」를 보고 내가 느낀 그대로 감상문을 써 봅시다.



A large, empty light blue rectangular box provided for writing a reflection on the painting.

▶ '세네치오'는 노랑 국화꽃의 일종입니다.



배움 다지기

●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썼나요?



10

에드워드 제너와 종두



◆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비교해 봅시다.



‘천연두’는 어떤 병이었는지 알아보시다.



천연두에 걸린 어린아이



천연두는 인류가 존재해 온 만큼이나 오래된 전염병입니다. 옛날에는 천연두가 무섭게 번졌습시다. 건강한 사람도 먼지나 타액으로 쉽게 감염되었습니다.

천연두는 감염된 지 12일이 지나면 발병하는데, 첫 3일은 열이 나고 오한과 요통이 생깁니다. 그 뒤 3일째부터 5일째에 작은 물집이 생기는데, 첫 작은 망울이 얼굴에 나타나고 점차 온몸으로 물집이 퍼집니다.

환자가 병을 견디고 살아나게 되면 고름 주머니가 가라앉으면서 12일 후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만일 이때 고름이 생긴 자리에 다른 병원균이 침투하면 흉터로 남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눈과 귀가 멀기도 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1980년 5월 8일에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드워드 제너와 종두

6주 전, 제너는 우두 병원균을 제임스의 팔에 상처를 내서 집어넣었습니다. 우두 병원균은 소젖을 짜다가 천연두에 걸린 소녀의 고름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병원균 때문에 제임스도 우두[•]에 감염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가 제임스는 어깨가 아프다고 했고, 다음 날에는 입맛도 잃었습니다. 거기에 두통과 오한도 일었습니다. 아이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이가 다음 날 아침에는 기운을 되찾고는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접종하려는 우두 병원균이 더 이상 제임스를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박사님, 제임스가 심한 병에 걸리지는 않겠지요?”

제임스의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부인, 제 말을 믿으세요. 위험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신께 맹세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너는 늘 그렇듯 다정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너는 아이의 옷소매를 걷어 올린 뒤에 조그만 유리병에 메스를 담갔다가 팔의 피부를 조금 절개했습니다. 제너는 이 일을 세 번 반복한 다음, 제임스의 팔을 깨끗한 붕대로 감았습니다.



“아주 잘 참았다. 참 씩씩하구나. 그런데 제임스, 그거 아니? 어쩌면 넌 곧 유명해질 거라는 걸 말이다.”

제임스는 아무 탈 없이 건강했습니다. 제너는 완전히 확신하기 위해 제임스에게 몇 달 뒤에 다시 한번 우두 병원균을 접종했지만 역시 괜찮았습니다. 마침내 에드워드 제너는 1796년 7월 1일에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 가는 천연두를 막을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너가 예방 접종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시골이라는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시골에서는 하녀들도 ‘천연두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은 더 이상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문을 조사하던 제너가 스승 존 헌터에게 조언을 구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실험해 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너는 그 충고를 따랐습니다. 버클리로 돌아온 지 2년 뒤에 제너는 우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인내심으로 21년을 기다린 결과, 제임스를 대상으로 실험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실험 성공 후 2년 만에 제너는 혼자 힘으로 실험 결과를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매우 좋아했지만 다른 의사들과 사제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소에게서 나온 병원균을 일부러 사람 몸에 접종했다는 사실을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혹시 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는 딸이 예방 접종을 한 다음부터 소처럼 기침을 하고 온몸에 털이 북슬북슬하게 났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문도 연일 제너를 조롱하느라 지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문은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의 코나 팔에서 송아지가 비죽 자라나는 삽화를 신기도 했습니다.

1 「에드워드 제너와 종두」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제너는 어떤 결과를 확신하고 제임스에게 우두 병원균을 넣었나요?

- 2 스승 존 헌터가 제너에게 해 준 충고는 무엇인가요?

- 3 처음에 제너가 실험 결과를 세상에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 제너와 제너를 비난했던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써 봅시다.

3 **보기**의 행동과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 ○표를 해 봅시다.

보기 제너는 우두 실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21년을 기다린 결과, 제임스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 모기 보고 칼 뺀다.
- 공든 탑이 무너지랴.
- 비단옷 입고 밤길 다닌다.

4 제너의 업적과 가치가 잘 드러나도록 기념비를 완성해 봅시다.



제너(1749~1823)

5 「지석영」을 읽고 인물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지석영

종두법을 도입하여 마마(천연두의 우리말 이름)로부터 한국인을 해방한 사람이 바로 지석영이다. 지석영의 스승인 박영선이 일본에 수신사로 가게 되자 종두법에 관심이 많던 지석영은 박영선에게 부탁해 「종두귀감」을 얻을 수 있었다.

「종두귀감」으로 종두법의 이론을 공부한 지석영은 1879년 서울에 천연두가 유행해 조카딸과 많은 어린이가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종두법을 본격적으로 배울 결심을 한다. 25세의 지석영은 일본 해군이 세운 부산의 제생 의원에서 종두법을 배우려고 부산까지 먼 길을 떠났다. 지석영은 2개월간 종두법과 우두 제조법을 배우고 우두 침 2개를 얻을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던 날, 지석영은 두 살 난 처남에게 우두를 놓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종두법을 실시했다.

그러나 종두를 시행하려면 천연두에 걸린 소에서 뽑아낸 유백색의 체액인 두묘가 필요한데, 이것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지석영은 1880년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 도쿄에 건너가서 두묘의 제조법과 저장법을 배운 뒤 귀국해 안정적인 두묘 공급의 물꼬를 텃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82년 임오군란 중 종두법이 일본에서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애써 만든 종두장이 불타 버리고 말았다.

난리 중에 잠시 피신했던 지석영은 정국이 바뀌자 서울로 돌아와 종두장을 재건했다. 또한 전주에 우두국을 설치하고 이듬해에는 공주에도 우두국을 만들어 종두법을 널리 보급했다.



배움 다지기

- 글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비교했나요?



11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편지글을 써 봅시다.



글에서 묘사하는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제 방은 탑의 위층, 북서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이 탑은 새로 부속 병원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전염병실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제 방은 창문이 둘 있고 전망도 좋습니다.

제 방을 어떻게 장식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갈색과 노랑의 교향악입니다. 벽은 염색하지 않은 가죽 같은 빛깔이어서 노란 커튼과 방석, 그리고 갈색 책상 한 개와 등나무 의자 한 개, 그리고 한가운데에 잉크 얼룩이 있는 갈색 카펫을 깔아 놓았어요. 그 얼룩 위에 의자를 배치했지요.

두 개의 창문이 너무 높아서 앉은 자세로는 밖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서랍장 위쪽을 천으로 씌워 창가에 바짝 붙여 놓았지요. 창가에 앉기에는 안성맞춤의 높이예요. 서랍을 모두 빼놓고 그것을 층계 삼아 올라간답니다. 정말 편리해요!



키다리 아저씨

록윌로 농장에서 토요일 밤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

지금 막 도착해서 짐도 풀지 않았어요. 농장이 얼마나 제 마음에 들었는지 당장 알려 드리고 싶어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신나는 곳이 이 세상에 있었다니요!

집은 여기에 그린 그림처럼 네모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확실히 100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는 그릴 수 없지만, 옆으로 베란다가 있고 정면에는 아담한 현관이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이 집의 진면목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어요.



깃털로 된 먼지떨이처럼 보이는 것이 단풍나무이고, 찾길 양옆에 있는 가시 돋친 듯한 나무는 산들거리는 소나무와 솔송나무입니다. 언덕 꼭대기에 집이 있어 몇 마일이나 펼쳐진 아득한 파란 목장 저편에 있는 여러 개의 언덕 능선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물결이 일고 있는 듯한 모습이 코네티컷주 마르셀 웨이브(굴곡이 심한 물결 모양)예요. 그리고 록윌로 농장은, 바로 그 하나의 물결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지요. 전에는 축사들이 길 건너에 있어 전망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친절하신 벼락님이 하늘에서 떨어져 축사들이 다 불타 버렸대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샘플 씨 부부와 하녀 한 사람, 고용된 두 사람이에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샘플 씨 부부와 저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로 햄과 달걀과 비스킷과 꿀, 젤리 케이크와 파이와 피클과 치즈를 먹고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태껏 이렇게 남을 재미있게 해 준 적은 난생처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우스운가 봐요. 하긴 한 번도 시골에 와 본 일이 없으니 제 질문이 모두 어리석은 것들뿐이었을 거예요.

그림에서 x표를 한 곳은 살인 현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쓰는 방이라는 표시입니다. 큼직하고 네모반듯하며 널찍한데, 멋진 골동품과 가구와 열어 놓으려면 막대기로 받쳐야 하는 아래위로 여닫는 창문이 있어요. 또 건드리기만 하면 부스러져 떨어질 것 같은, 금실로 테두리를 두른 초록색 차양이 있어요. 그리고 크고 네모난 마호가니 책상이 하나 있는데, 이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괴고 소설을 쓰면서 이번 여름을 지낼 작정입니다.



아아, 아저씨, 저는 지금 몹시 들떠 있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8시 30분, 촛불을 끄고 자려는 참입니다. 이곳에서는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아저씨는 이렇게 즐거운 생활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제가 정말 주디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아저씨와 은혜로운 하느님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욱, 더욱, 더욱 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올림

추신: 개구리들의 노랫소리와 새끼 돼지들의 울음소리를 들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초승달도 보여 드리고 싶고요! 달을 제 오른쪽 어깨너머로 보았답니다. (오른쪽 어깨너머로 초승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1 「키다리 아저씨」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어떤 일을 쓴 편지인가요?

2 주디가 농장 식구들에게 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3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어떤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 하나요?


2 「키다리 아저씨」에서 그림을 그린 듯 생생하게 표현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

.....

.....

.....



3 밑줄 친 곳에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봅시다.

보기 주디는 록월로 농장을 _____ 자랑을 했다.

입에 발린 소리로

입안의 혀와 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4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을 넣어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봅시다.

Blank writing area for a letter to '키다리 아저씨' (Mr. Longlegs). The area is framed in pink and yellow, with dashed lines for writing.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three colorful stars (green, pink, orange) with faces and small stars around them.

5 글에서 묘사된 내용과 어울리는 삽화를 상상해 봅시다.

둘리틀 선생은 나를 데리고 나가 정원을 구경시켜 주었다. 집이 흥미롭다면 정원은 그보다 백 배쯤 더 흥미로웠다. 지금까지 본 정원 가운데서 가장 쾌적하고 가장 매력적이었다. 처음에는 얼마나 큰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도무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이제 틀림없이 다 구경했다 싶을 때도 산울타리 위를 넘겨다보거나 모퉁이를 돌거나 계단을 올라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곳이 펼쳐졌다.

정원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넓디넓은 잔디밭에는 푸른 이끼가 낀 돌의자가 있었다. 잔디밭 위로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깃털 같은 버드나무 가지가 벨벳 같은 잔디를 스쳤다.

산울타리에는 입구가 나 있었다. 입구 위에는 살아있는 나무를 다듬어 만든 꽃병이나 공작이나 반달 같은 모양이 장식되어 있었다. 채마밭을 따라 서 있는 높은 벽돌담에는 햇살을 받아 익어 가는 분홍색과 노란색의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거대한 멋진 참나무도 있었는데 나무줄기에는 네 사람이 들어가 숨어도 될 만큼 큰 구멍이 나 있었다.

정자도 많았다. 나무로 지어진 것도 있고 돌로 지어진 것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책이 가득 차 있었다. 어느 구석, 바위와 고사리 사이에 옥외 취사장이 있었는데, 선생은 야외에서 식사하고 싶을 때면 거기 가서 간이나 베이컨을 튀기 고는 했다.



배움 다지기

-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묘사하여 편지글을 썼나요?



12

소원을 말해 보



◆ 목적이 있는 경제적 선택을 하고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경제적 선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키라는 열두 살 된 평범한 소녀이다. 어느 날, 키라는 자신이 키우는 개, 머니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모님은 늘 빚 문제로 찢찢매는데 키라가 한 달 용돈으로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CD를 사려 하자 갑자기 머니가 사람 말을 하며 키라를 말렸다.

키라는 머니의 충고에 따라 소원 앨범과 소원 상자를 만들고 성공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 가지 소원(컴퓨터, 샌프란시스코에 장학생으로 가는 것, 부모님 빚 문제 해결)을 이루기 위해 용돈을 저축하고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배운다.

키라의 저금통은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소원 상자’가 됐다. 머니의 전 주인인 골트슈테른 아저씨에게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를 듣고 절제의 의미를 안다. 그리고 저축을 할 때는 반드시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입의 50%는 미래를 위해, 40%는 소원을 위해, 10%는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습관을 지닌다. 또한 동네 개를 돌보는 등 일거리를 맡아 자신의 용돈을 마련하고 이렇게 번 돈을 트럼프 할머니와 펀드 모임을 만들어 재테크도 하고 주식도 하게 된다.

어느새 키라는 학교에서 유명한 경제 인사가 되었고 자기 또래의 친구들에게 저축하는 법, 재테크하는 법을 가르치게 된다.





머니가 알려 준
부자가 되는 방법

- 1 소원 목록 정하기
 -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열 가지를 적고,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고르기
- 2 소원 앨범 만들기
 - 소원이 그려진 그림을 찾아 앨범에 붙이고 매일 보면서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장면 상상하기
- 3 소원 상자 만들기
 - 소원을 이루기 위해 돈을 모으는 상자, 소원 하나에 상자 한 개씩 만들기
- 4 성공 일기 쓰기
 - 내가 잘한 일, 성공한 일을 하루에 최소한 다섯 개씩 찾아 적기

골트슈테른
아저씨가
알려 준 방법

머니의 전 주인 골트슈테른 아저씨와의 만남에서 저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됨.
아저씨는 저축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부르심. 여기에서 '거위'는 돈을, '황금알'은 이자를 말함.

수입



50%

미래를 위해

40%

소원을 위해

10%

소비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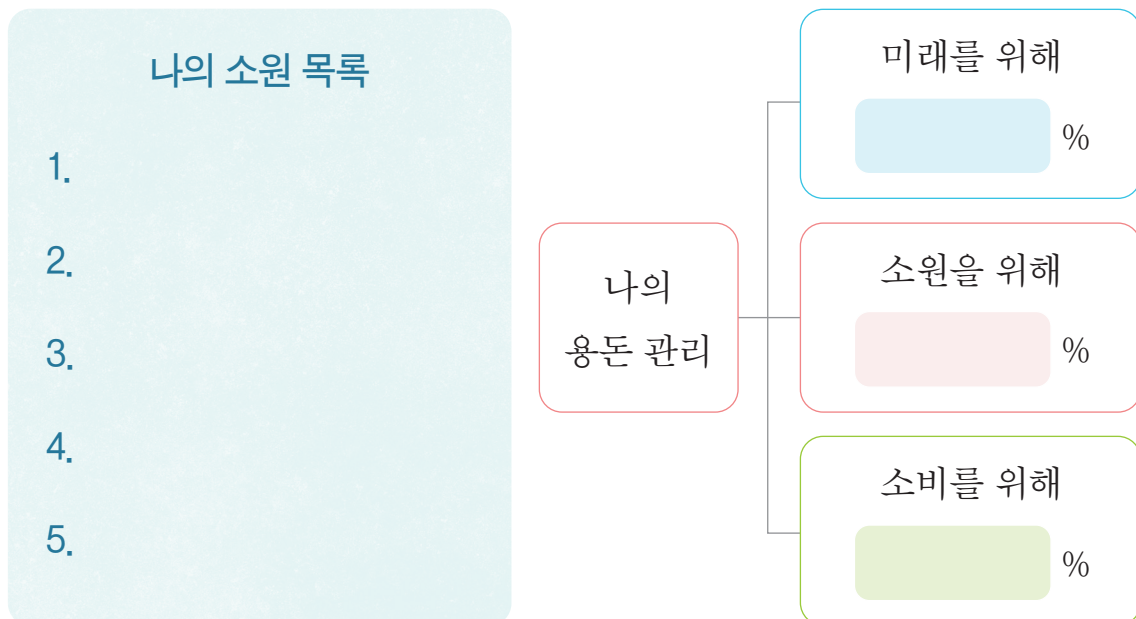
1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키라의 세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요?

2 골트슈테른 아저씨가 말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3 키라는 자신의 수입을 어떻게 나누었나요?

2 소원 목록을 만들어 보고 용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계획을 세워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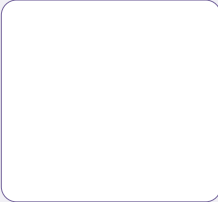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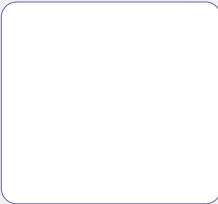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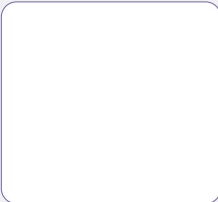


3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고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소비	뜻	
	문장	
절제	뜻	
	문장	

4 나의 소원 목록 중 세 가지를 경제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도 설명해 봅시다.

5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봅시다.

구분	소원을 이룰 방법	도움을 얻을 곳
소원 1 		
소원 2 		
소원 3 		



배움 다지기

- 목적이 있는 경제적 선택을 하여 소원 목록을 만들고 나의 생각을 설명했나요?

